지역 소식통

고창군, 신혼부부 · 청년 주택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고창군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난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7월 한달간 접수한다.

'신혼부부 주택대출 이자지원'은 2023년 심덕섭 고창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첫 시행됐다.

최근 지원기준과 대상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 뿐 아니라, 청년까지 확대했다. 신혼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지원횟수를 3년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1억5000만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 대출 뿐만아니라,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청년창업 역량 강화 컨설팅 수료식 개최

정읍시가 청년 창업가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과정을 마무리하고, 수료생들에게 창업자금 지원을 본격화한다.

정읍시는 지난 27일 청년지원센터에서 '2025년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4월 '정읍시 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1기)'에 선발된 예비 또는 초기 창업 청년 7명을 대상으로 9회, 총 1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사업계획서 작성법, 비즈니스 전략 수립, 마케팅, 세무회계 등 창업에 필수적인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시장 대응력을 높이는 실질적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다.

시는 이번 컨설팅을 수료한 7명 전원에게 앞으로 3년간 연 500만원씩 창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마실축제, 경제효과 82억원 창출

대표축제추진위, 축제 결과 · 문제점 공유 개선 방안 도출… 19만명 방문

부안군 대표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문) 제3차 전체회의가 지난 26일 부안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제12회 마실축제의 결과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제12회 부안마실축제 총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12% 가량 증가한 19만명, 1인당 1일 평균 지출액은 4만 4494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두 개 값을 반영한 결과 82억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 지출액은 식음료비(1만 7779원), 교통비(9624원) 순으로 많이 소비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방문객은 부안지역 주민이 6만 8382명(36%), 부안을 제외한 전북지역 주민 6만 6188명(34.8%), 타 지역민이 5만 5582명(29.2%)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객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3점, 재방문 의도는 4.31점으로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축제에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새롭게 선보인 '부안몬프렌즈(산들마실몬, 붉은노을몬, 푸른바다몬)' 캐릭터가 축제 전반에 활용되면서 축제가 예년보다 풍성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주민자치 공연 등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민이 이끌어가는 모습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며, 신설된 보행교 또한 방문객 이동 편의 측면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김종문 부안군대표축제추진위원장은 "부안군 대표축제로서 마실축제가 계속 성장해가는만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컨텐츠를 강화하여 '가족형 마실'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입주기업 성장 전폭 지원'

정읍시, 바이오 창업기업 · 지역혁신기관 관계자 간담회

정읍시가 바이오 창업기업과 지역혁신기관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전북테크노파크 바이오진흥센터와 공동으로 '지역혁신기관 창업보육동 입주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시장과 이송인 전북테크노파크 단장, 코워킹 스페이스 · 창업보육동 입주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정읍시 바이오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회계 · 법률 · 특허 등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이 소개되며 기업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시는 최근 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돼 국비 160억원을 확보했고, 60실 규모의 입주공간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첨단산단 부지 확장을 통해 우량 바이오 기업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창업 초기기업이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를 복합문화센터 내에 조성했다. 이를 시작으로 '공유사무실 → 연구기관 보육동 → 지식산업센터 →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생활인구 월평균 44만명 돌파

전북 인구감소지역 중 1위

정읍시가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조사에서 전북 인구감소지역 중 1위를 차지하며 머물고 싶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정읍시는 총 134만 796명(월 평균 44만 6932명)의 생활인구를 기록했다.

이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 · 군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2024년 1~4분기 누적 기준 월 평균 생활인구도 37만 5235명으로, 이 역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 외국인 등록 인구에 더해 통근 · 통학 ·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지역의 실제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통교부세 산정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읍시의 생활인구 증가 배경에는 10월 구절초 꽃축제와 정읍사문화제, 가을철 내장산 단풍 관광 등이 주효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축제와 체험형 콘텐츠가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렸고, 이는 곧 생활인구 확대로 이어졌다.

시에서는 사계절 머무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내장호 · 월영습지 · 솔티숲 등 자연생태 공간 △천사히어로즈 · 구절초 짚와이어 · 문화광장 순환열차 등 체험형 관광 △용산호 수상데크길 · 내장산 자연휴양림 같은 힐링 공간 △정읍사 달빛사랑 숲 · 정읍천 미로분수 등 도심 휴식공간 마련에 집중해왔다.

이학수 시장은 "사계절 체류형 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양식장 형망선 야간조업 허용' 발표

부안군 김태옥 주무관, 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이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6일 전주 왕의지밀 훈민정음홀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서 김 주무관은 '양식장 형망선 야간조업 허용'을 주제로 발표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 · 군이 제출한 총 23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 · 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 6건을 발표, 각 기관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 ·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주무관의 수상 사례는 '부인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명시된 '양식장 형망선은 일몰 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인해, 새꼬막 수확기에 야간조업이 제한되어 생산성 저하와 양식 어업인 소득 감소를 초래했던 문제를 해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안군 곰소만 일대는 새꼬막을 생산하는 주요 양식장이며,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한된 기간에 새꼬막 채취 조업이 집중된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물때)를 고려해 조업해야 하므로, 양식장 형망선을 활용한 상시(24시) 조업체계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제2호 격포어촌계 골목형상점가 지정

부안군은 지난 2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변산면 격포리 788-12번지를 포함한 격포항 일원의 상권을 '격포어촌계 골목형상점가(회장 김경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격포어촌계 골목형상점가'는 부안군에서 두 번째로 지정한 골목형상점가로, 격포어촌계수산물회센터, 격포항수산시장, 격포개방형회센터 등 수산물 중심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으며, 오는 7월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로, 2,000㎡ 이내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있는 구역의 상인회에서 지정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특히 최근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하여 상권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화영 부군수는 "이번에 지정한 격포어촌계 골목형상점가는 연초에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격포항수산시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국가보훈부 우수기관 표창

고창군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문화 확산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전부서 부보훈지청 3층 황금재실에서 보훈문화 확산 우수기관 표창(국가보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앞서 고창군은 올해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 현충시설 정비, 보훈단체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훈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 지역사회 내 보훈문화 정착에 앞장서왔다.

/고창=김영식 기자